‘네거티브 한방’에 넘어간다

■한나라당 경선 李-朴 막판 돌출변수 차단 부심

“금품 살포·후보 실수 막아라” 경계령

강원도 춘천에서 한나라당 경선 후보 제5차 합동유세가 펼쳐진 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는 경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 대세론 확산과 역전론 부각에 안간힘을 쏟았다.

이 전 시장측은 현재의 우위를 경선일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목표 아래 승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막판 폭로 등 돌발 네거티브 변수의 출현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은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행위가 ‘박풍(朴風) 대역전극’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감시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변수 차단에 나섰다.

◇李 ‘눈물작전’ ‘네거티브전’ 우려=이 전 시장측은 경선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박 전 대표 캠프에서 역전의 최후 수단으로 몇 가지 극약 처방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박근혜의 읍소작전’이다. 경선 나흘 전인 오는 15일이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광복절이라는 점에 착안, 하루 전날(14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자신의 아성인 대구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를 ‘눈물 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이 전 시장 캠프에서는 박 전 대표가 대구 연설회에서 부모의 불행한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눈물로 TK(대구·경북) 정서에 호소할 경우 지난 대선에서 선보였던 이른바 ‘노무현의 눈물’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금품살포설’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 캠프에서는 또 다른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며 차단막을 치고 있다.

◇朴측 “금품선거 막아라”=이 전 시장측의 금품살포 등을 통한 부정선거 행태가 선거 막판 ‘박근혜 바람몰이’의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필패론’, ‘부패후보론’, ‘약한후보론’이 확산되면서 이 전 시장측의 대세론이 흔들리자 그동안 우려해 왔던 이 전 시장측의 금권선거 움직임이 본격화될 소지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박 캠프의 주장이다. 캠프 핵심 인사는 “전국에서 사조직 동원, 금품 향응 접대 정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 선거행위, 특히 금품 살포, 선거인단 매수, 향응제공, 조직동원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전국네크워크를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제5차 합동연설회=한나라당은 1일 오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 홍준표 의원 등 경선후보 4인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3천500여명의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된 강원지역 발전공약과 함께 자신이 정권교체의 최적임자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후보가 1일 오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5차 합동연설회에서 연설 순서를 기다리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노태우정권까지 선거 개입”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경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7년까지 각종 선거에 광범위하게 불법 개입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종수 위원장은 “관련 재판기록과 공적 자료, 전직 간부들의 증언 및 비망록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경찰 등 공무원들이 87년까지 선거에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은 1960년 3.15부정선거, 1963년 제6대 총선, 1967년 6.8선거, 1971년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 1981년 제11대 총선, 1987년 제13대 대선, 1992년 제14대 총선 등 당시에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선거들이다.

이 가운데 1987년 대선까지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불법 개입이 판을 쳤으며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1992년에도 지역에 따라 일부 공무원과 경찰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1987년 당시 강원도 모 지역 경찰서장을 이모씨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강원도지사를 통해 정보 형사 활동비를 받은 기억이 있다. 이 돈을 정보과장에게 줘 활동비로 사용하게 했다”며 정부의 지원금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입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경찰 등 공권력의 불법 선거개입이 절정을 이뤘던 시기는 자유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 시절로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금권선거 등 노골적인 수법이 주를 이뤘다.

반면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점진적인 진행으로 노골적인 개입보다는 치안정보 불법 이용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선거를 방해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용공조작 의혹’ 분야에 대해서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1994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요시찰인을 지정·관리해왔고 정치인 등 사회 주요인사를 사찰,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공조작 의혹과 관련, 정부가 부정선거 시비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공안사건을 발표해 무더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아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유형 변천

시기	선거개입 유형	조사 대상
이승만 정권	• 유권자 매수 • 선거운동 방해 • 유령·대리 투표 • 사전 무더기 투표 • 3인조·9인조 공개투표 • 야당 참관 방해 • 투표함 바꿔치기 • 개표조작(혼표, 환표) • 득표 결과 조작발표	54년 3대 민의원선거 60년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정권	• 야당 참관 방해 • 선거운동 방해 • 사전선거 운동 • 금품살포·유권자 매수 • 투표방해 • 투표용지 바꿔치기 • 투표수 조작	67년 7대 총선(6·8 선거) 71년 7대 대선 71년 8대 총선 78년 10대 총선
전두환 정권	• 유권자 매수 • 후보자 매수·비방 • 사전 선거운동 • 투·개표 간섭	81년 12대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81년 11대 총선
노태우 정권	• 금품 살포 • 후보자 비방	88년 13대 총선 92년 14대 총선

盧대통령 “8·15 사면 계획 없다”

12월 대선까지 특별사면 않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등 오는 12월 대선까지 특별사면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를 비롯, 각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특별사면은 대선이 끝나고 난 후 참여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8·15를 앞두고 경제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청해 정부도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왔지만, 8·15 특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이니 정치적 편향이라는 왜곡과 오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논란 등을 감안해 12월 대선까지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면 전에는 ‘사면을 해야 한다’고 하다가 사면을 하면 ‘정파적이다’, ‘균형을 잃었다’느니 ‘정략적 선거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대통령도 그런 현실적 고민과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검찰, ‘李후보 맏형’ 상은씨 출석 요청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를 둘러싼 고소 및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 후보의 맏형인 상은씨에게 2일 또는 3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은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1일 “검찰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구두로 이씨에게 2일이나 3일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와 출두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다스의 소유 및 지분 관계와 투자자문회사인 BBK에 투자한 경위, 서울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 여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서울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개발 특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질문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함께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서울 도곡동 땅을 사들인 뒤 포스코개발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다스와 홍은프레닝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재산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거나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때 각종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투자를 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지난 6월7일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뒤 박근혜 후보 캠프측 전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씨에게 건넨 혐의로 전직 경찰 권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전날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8일
▶주택관리사 1,2차(월~토) 시험일 : 10월21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말반(토,일) 시험일 : 10월21일
◉모집대상
▶훈련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컴퓨터과정-
◉모집과정
▶정보화기초1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정보화기초2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수료후 10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업시간
▶월,수,금 19 : 00~21 : 00(기초2) ▶화,목 19 : 00~21 : 00(기초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特報 : 세무公務員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
7·9급 공무원 大특강
9급 세무직 2700명 공채 ◉1차:9월16일 시행(1200명 모집) ◉2차:내년초(1500명 모집 예상) (사상초유 大모집)
全南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하반기 시행
개강 8月1日 주야반모집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개설직종: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국관리직, 기술직
7·9급 공무원 짝수반 첫진도 7개월 전남일행·교행문제풀이 1개월
9급세무직 3,000여명모집 전남교육행정 문제풀이 1개월
한빛공무원학원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개강▶8월 1일 (전직종 첫진도 = 사전예약접수 중)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방학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2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원, 태권도도장, 각·이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인증기관 : 경찰청 10월 14일 시험확정
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합격을 원하십니까?
1. 현재 강의는 진행하고 있는가
2. 강사는 누구인가 (전공분야 전문가인가)
3. 2차 시험 강의는 진행해주는가 (추가비용 유·무)
이런 점을 꼭 문의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전문교육원은 광주·전남지역에는 한 곳 뿐입니다
※ 본원에는 100명 이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대행
(마감 : 8월1일~8월18일까지)
무료공개강의 오후 2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합격 후 진로선택 방향제시, 합격의 비결, 준비요령 등 방문하시는 분은 출제경향 분석서 제공
회원 합격을 위한 무료특강 (강사:강준성 현직 대학교수 공학박사)
• 월·수반 : 오후 7~9시(본원 강의장)
• 화·목반 : 오후 7~9시(본원 강의장)
• 토 요 반 : 오후 2~5시(본원 강의장)
●1회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한다
출제기준에 맞춘 수험서 + 핵심강의 + 동영상강좌 + 적중 블랙박스 문제풀이 = 합격
■시험과목 : 1차 - 교통사고소사론, 교통사고 재현론, 교통관련 법규, 차량운동학
2차 - 교통사고 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합격기준 :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평균 60점 합격
■자격증 인증기관 : 경찰청
■시험주관 : 노무교통안전관리공단
■위 치 : 롯데백화점 정문 건너편 북동성당 후문 옆 제일빌딩 3층
시험안내 접수 062)528-7788
- 경찰고시연구회 부설 -
교통사고 감정교육원